

억눌렸던 감정과 정서의 분출 통로, 朦朧詩

- 몽롱시인 舒婷의 작품성을 중심으로

尹貞善*

<목 차>

- I. 서론
- II. 몽롱시의 배경과 특성
 - 1. 몽롱시의 배경
 - 2. 몽롱시의 특성
- III. 몽롱시인 舒婷의 작품성 분석
 - 1. 舒婷 詩의 시적 자아
 - 2. 舒婷 詩의 정서상 특징
- IV. 결론

I. 서론

古代로부터 중국은 詩를 숭상해 왔으나, 1930년대 말부터 혁명의 불길에 휩쓸려 정치의 선전도구가 되고 만다. 그렇지만 지식인과 문화인들에게 재앙이며, 정신적·문화적 대학살이었던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다시 문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치언어가 아닌 개인 언어로 ‘문학을 위한 문학’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문학 운동¹⁾이 전개된다. 특히 문화대혁명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江青 등 四人幫이 설치해 놓은 금지구역을 과감히 돌파하는 문학작품들이 지하에서 들었다. 이른바 지하

문학²⁾ 작품들이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기는 집단 속의 ‘나’가 아닌 개체로서의 ‘나’의 감정과 개성이 억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억눌렸던 감정과 개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분출되는 시기에는 표출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순간의 번뜩임과 통쾌함이 보이기도 하지만 혼란함과 생경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詩歌분야에서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朦朧詩’이다.

이러한 작품은 1976년 4월5일 천안문 광장에 모여 周恩來의 서거를 추모한 이른바 ‘天安門詩歌’에서 비롯된다. 무명의 시인들이 지어서 천안문 여기저기에 붙인 ‘천안문시가’는 주은래 추모, 사인방 비난, 문화대혁명 비판 등을 주제로 한 詩들이었다. 시위에 참가하였던 학생과 지식인들은 은유·풍자·독설을 통해 호소력과 기동성이 뛰어난 시로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의 부작용과 엄청난 폐해에 대하여 자신들의 격분과 비통함을 분출해냈다.³⁾

홍위병 운동 퇴조 이후 知青들은 대중들로부터 배우기 위한 ‘上山下鄉’이라는 명분으로 도시를 떠나 산간벽지에 하방되어 궁벽하고 낙후된 환경에서 고된 유배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上山下鄉’이 자신들의 세월을 허비하게 했다고 여겼으며, 그런 세월을 권력에 의해 짓밟힌 세월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현실에 대해 절망·비관하는 知青들의 처량한 정서가 그대로 노출된 작품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이들은 비판적인 정서를 관념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

2)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출판, 특히 관련된 출판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郭沫若, 浩然, 및 일부 공농병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의 출판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정기간행물로는 『解放軍文藝』를 제외한 모든 문예잡지의 출판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유통·보관되는 작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치운동과정을 통해 비판받고 공식적인 창작을 자제하고 있던 작가들이나 1969년 이후 산간벽지로 上山下鄉된 知青들이 주로 창작한 이러한 작품들을 통틀어 ‘지하문학’이라고 한다. ‘지하문학’은 일반적인 시각처럼 현실비판이나, 체제저항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으며, 그 내용이나 지향하는 바와 관계없이 공식적 출판경로를 통하지 못한 모든 작품들을 포괄한다. 지하문학은 1974년 문화대혁명주도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1976년 천안문시가 운동을 계기로 잠재역량을 드러내며, 문화대혁명 이후 다양한 문학경향을 탄생시키는 모태가 된다(김영구·김시준 共著, 『중국현대문학론』, 206-207쪽).

3) 김영구·김시준 共著, 『중국현대문학론』, 321쪽.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碩士課程

1)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이들은 “朦朧詩派”라고 불리는 한편, ‘現代詩’, 또는 ‘現代化詩’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몽롱시가 ‘現代’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몽롱시는 현대적 시로서 현대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어떤 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사조는 서양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일컬어지고, 중국에서는 ‘現代派’, ‘現代主義’, ‘後現代主義’, ‘後現代派’ 등으로 불린다(박종숙, 1993: 56쪽).

결과 절망감이 현실초극의 비장한 의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하문학은 대부분 '詩'라는 형식을 통해 실현되었다. 그것은 詩가 '이단'적인 정서를 시험하는데 비교적 적합한 형식이었기 때문이다.⁴⁾ 그들 중 일부는 '문화대혁명' 이전에 출판되었던 서적들과 구미와 러시아의 여러 명작들을 몰래 돌려 읽으면서 시와 소설을 직접 창작했으며, 그것들은 필사본 형식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⁵⁾

그들이 몽롱시의 창작을 통해, 물개성적이고 공식적인 기존의 문학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아 표현을 강조하면서 그 예술적 수단으로서 서방 모더니즘적 요소를 적극 활용했던 것은, 문학 그 자체의 성격이 새로이 부각되는 신시기 중국문학의 진로 모색 및 신시기 중국문학에서의 모더니즘 부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몽롱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막혀있던 감정과 정서의 분출통로가 되어, 문학사적 가치 이상의 것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문화적 공백기라는 문화대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들이 표출한 감정과 정서는 그 시대 중국만의 공간적·시대적 특수성을 띠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아마추어 시인들의 작품이 '몽롱시 논쟁'을 일으키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몽롱시인들의 작품이 어떠한 이유에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환영을 받기도 했는지, 당시 유달리 환영을 받았던 舒婷의 작품을 당시의 시풍을 대표하는 다른 시인의 작품들과 비교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II. 몽롱시의 배경과 특성

1. 몽롱시의 배경

1978년 가을에 시작된 민주화 운동 '北京의 봄'의 열기를 타고, 20여명의 청년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철공 노동자 北島와 제지공 芒克을 중심으로 민간 간행물 『今天』을 대자보 형식으로 간행하였다. 1978년 12월 23일부터 등사판 인쇄로 1980년 9월까지 격월로 겨우 9호를 발행하고 黨命과 北京시 공안국에 의해 사라진 짧은 생애의 『今天』은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면서 '문학을 위한 문학'을 표방하였다. 이 잡지는 창간호 발간사에서, 자신들은 문화대혁명으로 상징되는 전체주의와 진근대성에 대하여 철저히 부정하고,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찾으며, 일체의 기존 관념 및 질서에 대한 불신과, 저항 및 반항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질서의식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는 책임감을 공언하면서 탄생을 알렸다.

역사가 기회를 주었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今天(오늘)'만이 있을 뿐⁶⁾이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실린 『今天』은 다른 민간 간행물과 달리 정치·사회적인 내용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순수문학 작품만을 게재했다. 편집자들은 모두 시인이었는데 창간부터 정간까지 출몰한 작가는 모두 18명으로, 게재된 작품에는 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103편)이외에도 소설(산문 포함 26편), 평론, 번역 등 다양한 작품의 시도가 존재했다. 과거 문화대혁명시기의 시는 혁명영웅을 묘사하고, 당과 지도자의 찬양 등을 묘사하도록 강요당했으나, 『今天』에 수록된 작품들은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대담하게 표출하며 정

4) 김영구·김시준 共著, 『중국현대문학론』, 209-210쪽.

5) 北島, 배도임 옮김, 『한밤의 가수 - 午夜歌手』, 281-286쪽.

6) "역사는 마침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 세대 사람들이 1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 둔 것들을 큰 소리로 노래 부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다시 무서운 천둥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림은 곧 후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가 이미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피눈물 속에서 떠오른 여명의 날이다. 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고루한 옥토 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을 위해 사는 신념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요원하다. 우리 세대로 말할 것 같으면 단지 오늘이 있을 뿐이다." —『今天』創刊辭 중에서

치에 대한 환멸, 사회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좌절, 인간적인 삶의 진실 등을 은유·비유·연상·상상력 등을 구사하여 과거의 시 창작 수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징주의적·모더니즘적 수법을 활용했다. 그들은 ‘창조성’을 최고의 준칙으로 삼고, 기교에서는 이미지와 상징을 통하여 朦朧美 창조를 강조했다. 또한 음악, 회화 등 형식적 요소를 돌출시키고, 실험적 경향을 보였다.⁷⁾

『今天』은 詩志는 아니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많은 시를 게재하였고, 北島, 芒克, 舒婷, 江河, 楊煉 등 당시로는 아직 무명이었지만 재능 있는 시인들을 집결시켰다. 이들 시인들은 중국시의 상식을 뒤엎을만한 작품들을 잇달아 『今天』에 발표했다. 그들은 시인 개인의 자아를 대담하게 드러내고, 연애감정·정치에의 환멸·좌절감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그대로 묘사했다. 또한 정치나 역사, 사회 등의 공적인 주제나 내용을 다룰 때에도 그것을 개인의 독자적 시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유한 감정으로 착색했다.

이와 같이 ‘천안문시가’ 운동을 통하여 지하에서 나와 청년노동자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발행된 대자보형식의 민간 간행물 『今天』 등을 통해 응집된 몽롱시는 문화대혁명의 종말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문학 운동의 성과물로, 더 나아가 새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정신을 탐색하는 선구적인 과정의 모든 혼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대정신이 깃든 역사물이다.

2. 몽롱시의 특성

朦朧詩란 비평가들에 의해 난해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朦朧’이란 일반적인 語義로 ‘안개 속에서 꽃을 바라보거나’, ‘달이 나루를 건너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시의 상징성과 암시성, 깊고 어두운 관념, 중첩되는 인상, 그리고 잠재의식 등을 지칭한다고 한다. 근본을 놓고 따지자면 ‘審

7) 北島, 배도임 옮김, 『한밤의 가수 - 午夜歌手』, 282-283쪽.

美的식의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한편 『우리말 큰 사전』이나 『大漢和辭典』에 의하면 ‘朦朧’이 ‘朦朧體’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시나 문장에서 분명한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⁹⁾ 여기에서는 이에 속하는 몇 편의 시 全文을 통해 몽롱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정치에의 환멸·좌절감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그대로 묘사한 부류에 속하는 北島의 「回答」이다. 이것은 천안문사건 후 쓰인 그의 대표작으로 1978년 12월 커다란 글씨로 된 포스터의 형식으로 北京의 민주벽 등에 붙었던 『今天』의 제1호에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

卑鄙是卑鄙者的通行証,
高尚是高尚者的墓志銘,
看吧, 在那鍍金的天空中,
飄滿了死者彎曲的倒影。

비열함은 비열한 사람들의 통행증,
고상함은 고상한 사람들의 묘비명,
자 봐라, 저 도금된 하늘에
죽은 자의 일그러져 거꾸로 선 그림자들이
가득 떠돈다.

冰川紀過去了,
爲什麼到處都是冰凌?
好望角發現了,
爲什麼死海里千帆相競?

빙하기가 지났는데
왜 여기저기 얼음 조각 투성이인가?
희망봉이 발견되었는데
왜 사해에서 수많은 배들이 서로 경쟁하는가?

我來到這個世界上,
只帶着紙、繩索和身影,
爲了在審判之前,
宣讀那些被判決的聲音。

내가 이 세상에 올 땐
종이와 밧줄과 그림자만 가져왔다.
심판받기 전에
저 판결의 소리를 선포하기 위해

告訴你吧, 世界
我—不—相—信! ¹⁰⁾

너에게 고하노라, 세상아,
나는—믿지—않는다!

8) 顧城, 김태성 옮김, 『나는 제멋대로야』 「소생 또는 깊은 잠 - 몽롱시 문답」, 206쪽.
9) 박종숙, 『現代主義와 舒婷의 朦朧詩』,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제2집, 55-56쪽.
10) ‘我—不—相—信!’, 이 구절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구호가 되어 대자보에 적혀서 퍼져나갔는데, 이로 인해 그는 반동분자의 핵심인물이 된다. 이후 수많은 시인 등의 예술가들이 탄압, 구금당하게 되었는데, 1989년 제2차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 정부가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대다수의 ‘몽롱시인’들이 숙청되었다. 바로 그때, 다행히도 낭독회 참

縱使你腳下有一千名挑戰者，
那就把我算作第一千零一名。

我不相信天是藍的，
我不相信雷的回聲，
我不相信夢是假的，
我不相信死無報應。

如果海洋注定要決堤，
就讓所有的苦水都注入我心中，
如果陸地注定要上升，
就讓人類重新選擇生存的峰頂。

新的轉机和閃閃星斗，
正在綴滿沒有遮攔的天空。
那是五千年的象形文字，
那是未來人們凝視的眼睛

너의 발아래 이미 천 명의 도전자가 있더라도
나를 그 천한 번째 도전자로 삼아 다오.

나는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천둥의 메아리를 믿지 않는다.
나는 꿈이 거짓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 인과응보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바다가 기어이 독을 무너뜨리겠노라면
모든 쓴 물을 내 맘 속에 쏟아 붓게 하라.
땅이 기어코 솟아오르겠노라고 하면,
인류에게 다시 생존의 봉우리를 택하게 하라.

새로운 전환점과 반짝이는 별들이
가린 것 없는 하늘에 가득 엮여져 있구나.
그것은 오천 년의 상형문자,
그것은 미래의 사람들이 응시하는 눈동자.
北島, 「回答」全文

1연에서 北島는 ‘비열한 자들’과 ‘고상한 자들’을 대비시키며 문화대혁명의 사악한 죄악들을 묘사한다. ‘비열한 자들’은 문화대혁명기 동안 생존을 위해 비열하게 행동해야했던 중국의 보통 사람들을 상징한다. 반면에 ‘고상한 자들’은 1976년 후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四人幫(혹은 毛澤東)을 상징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거꾸로 선 일그러진 그림자들’이란 것은 이 당시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상처 입은 ‘상흔의 세대’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연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끝났음에도 그가 추구했던 가치 ----- 진정한 휴머니즘, 자유로운 문학에 대한 열정 등 ----- 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통탄하고, 빙하기가 끝나고 새로운 출발

가 차 프랑스에 있던 北島는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명생활을 시작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전전하다가 현재 미국에 정착해서, 망명동지들과 어울려 문학운동,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망명객들이 해금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음에도, 北島는 여전히 떠도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한용, <http://www.poemcafe.com/zboard/view.php?id=data5&no=5#>, 2005)

로 이어지는 3연에서는 현재 자신의 실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문화대혁명의 범죄자들을 심판하여 처형한다고 지난날의 비인간화가 끝날 수 없다는 생각과 자신의 무기력함 등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4연에서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위하여 강렬한 저항의식으로 그를 둘러싼 모든 가치 ----- 전통적인 가치 ----- 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정은 5연에서 자연현상(‘하늘의 푸르름’과 ‘천둥의 메아리’)까지도 부정하는 강렬한 저항의식으로 발전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시는 문화대혁명기간 동안 毛澤東主義에 의해 파괴된 인간성의 회복은 결국 존재하는(전통적인) 모든 가치의 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감지한 北島의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젊은 지식인들이 펼친 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철학적 문제를 제시한 시인 자신의 「回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北島는 문화대혁명을 단지 몇몇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 파생된 정치적 현상의 부산물로서 간주하기 보다는 이 재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국 전통의 문화, 사고방식, 가치체계 등에서 파악하고자 했다.¹¹⁾

아래의 작품 「履歷」에서도 北島는 문화대혁명에 교조적인 저항을 하며, 우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我會正步走過廣場
剃光腦袋
爲了更好地尋找太陽
却在瘋狂的季節里
轉了向，隔着柵欄
會見那些表情冷漠的山羊
直到從鹽鹼地似的
白紙上看到理想
我弓起了脊背
自以爲找到了表達真理的
唯一方式，如同
烘烤着的魚夢見海洋

일찍이 나는 정보로 광장을 지나갔다.
머리를 뽀뽀 깎고
태양을 더 잘 찾기 위해서
그러나 미쳐버린 계절에
방향을 돌려 울타리 너머
저 냉담한 표정의 염소들을 만나고
알칼리성 토지 같은
백지 위에서 이상을 보기까지
나는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찾았는가 싶었다. 진리를 표현할
유일한 방식을, 마치
불에 구워지고 있는 생선이 바다를 꿈꾸듯이

11) 정우광, 『빼이따오의 시와 시론』, 243-245쪽.

万歲！我只他媽喊了一聲
胡子就長出來了
糾纏着，象無數個世紀
我不得不和歷史作戰
并用刀子与偶像們
結成親眷，到不是爲了應付

那從蠅眼中分裂的世界
在爭吵不休的書堆里
我們安然平分了
倒賣每一顆星星的小錢
一夜之間，我賭輸了
腰帶，又赤條條地回到世上
點着無聲的烟卷
是給這午夜致命的一槍
当天地翻轉過來
我被倒挂在
一棵墩布似的老樹上
眺望

만세! 나는 제기랄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불쑥 수염이 길게 자라나와
뒤엉켜 있다. 무수히 흘러간 세기들처럼
나는 역사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칼과 우상들을 함께 휘두르며
가족을 이루었으나, 얼버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파리의 눈 속에 분열된 저 세계와
언쟁이 끊이지 않는 책 더미 속에서
우리는 태연하게 똑같이 몫을 나누었다.
별 하나하나를 되거래한 푼돈을
하루밤새 나는 도박으로 날렸다.
허리띠마저도 흘랑 벗고 세상으로 돌아와
소리 없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은
이 한밤중에 치명타 한 방이다.
천지가 뒤집혀졌을 때
나는 거꾸로 매달렸다.
대걸레 같은 고목에서
멀리 바라본다.

北島, 「履歷」全文

위 작품에는 北島가 홍위병 시절 겪었던 경험과, 그로부터 생긴 생각과 감상이 담겨져 있다. 3행의 '태양'은 전제주의적 지도자 '毛澤東'을 상징하고, 6행의 방향 돌려 바라 본 울타리 너머의 '냉담한 표정의 염소들'은 하방되어 만난 경직된 공산주의 인민들을 나타낸다. 12행의 '불에 구워지고 있는 생선이 바다를 꿈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말하며, 그 현실과 이상의 큰 괴리 속에 몸담은 기나 긴 세월은 그만 길어져서 '불쑥 수염이 길게 자라나와' 버린 것으로 형상화했다. 22행의 '별 하나하나를 되거래한 푼돈'이란 이상을 그렇게 값어치 없이 팔고서 얻은 현실의 작은 대가이다. 그러나 그것마저 하루밤새 도박으로 날려 버리고 나서 24행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자 '허리띠마저 흘랑 벗고 빈털터리로 세상에 돌아'온다. 그리고 27행-30행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끝나며 천지가 뒤집히자, 이제껏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거꾸로 매달려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두 편을 보면, 그 속에서 현재에도 나무랄 데 없이 통용될만한 현대시의 특징을 가진 여러 감각적인 수사적 기법과 형식상의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 읽혀지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관념적인 비판과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데, 너털너털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이라는 '一棵墩布似的老樹上(대걸레 같은 고목)'에 거꾸로 매달려 주변인처럼 '眺望'하고 있을 뿐이다.

Ⅲ. 몽룡시인 舒婷의 작품성 분석

1. 舒婷 詩의 시적 자아

몽룡시인들은 주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부인을 도끼로 살해하고 자살한 顧城, 국가에서 해고된 후 망명하여 1988년부터 1995년까지 6년 동안만 해도 7개 나라를 전전하며 15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北島를 비롯하여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거나 기이한 행적을 남긴 사람들이 작품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당시 문화대혁명이 사라진 뒤, 정치적·사상적 혼란과 가치관의 공백으로 인한 허무주의 속에서, 당시 중국 사람들이 모두 함께 경험하였지만, 몽룡시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에 대해 예민하게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방황을 많이 한 탓인 듯하다. 몽룡시인들은 문화대혁명세대로 문화대혁명은 그들에게 펼쳐내 버리고 싶은 악몽이었지만 그것은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자양분이자 정신적인 뿌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며, 뿌리박고 있던 토양을 떠난 인간의 삶이란 다른 곳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枯死하기 십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좌절'과 '모색' 속에서, 사색의 원점을 언제나 문화대혁명에 두고, 잃어버린 자기의 청춘과 민족의 운명을 주제로 끈질긴 모색을 계속한다.

黑夜給了我黑色的眼睛
我却用它來尋找光明

어둔 밤은 내게 검은 눈동자를 주었으나
나는 그것으로 세상의 빛을 찾는다.
顧城, 「一代人」 全文

불행했던 대부분의 몽롱시인들 중에서 시인으로서나, 인생의 궤적에 있어서의 모습이 다른 시인이 한 명 있다. 그것은 바로 80년대 중·후반 ‘좋아하는 시인’ 각종 앙케이트 조사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지지를 받은 바 있는 舒婷인데, 그녀는 평탄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몽롱시인들 중에서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 온 경우이다. 시인으로서의 그녀는 문화대혁명 후기인 70년대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베껴지고 읽혀진 이래 198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규모의 상을 받았고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을 만큼 중국신시단의 선두주자이며, 삶의 궤적 또한 평범해 보인다.

舒婷의 몽롱시는 문화대혁명 10년의 폐해로 더욱 촉발된 사회주의 사회의 인간 상상실과 같은 北島, 顧城 등 같은 유과 시인들의 몽롱시와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내세워 공산당 체제에 도전한 北島 등과 달리 이를 시 속에 간접적이고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¹²⁾

또 상기한 北島의 「履歷」에서 시적 자아가 현실에 대해 「眺望」에 그치며 주변인에 머문 것과 달리 舒婷의 시에는 시적 자아가 소외된 사회의 절망적 상태만을 그리지 않고 상실된 자아를 되찾아 사회의 중심에 세우는 적극적 노력이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牆」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서정의 시는 대부분 ‘나’로부터 출발하여 ‘나’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啊, 我明白了,
我首先必須反抗的是:
我對牆的妥協,
和對這個世界的不安全感。

아, 이제야 알겠다.
내가 가장 먼저 반항해야만 하는 것은
벽에 대한 나의 타협과
이 세계에 대한 불안감.

舒婷, 「牆」

舒婷의 작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몽롱시에는 모두 ‘서정적 자아’의 마음속 세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시에는 공통적으로 자화상이 있다. 자기가 쓴 이력서가 있고, 인간의 상호 소모가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아를 언급한다. 그들에게 “자아는 개인본능의 충동일 뿐만 아니라 집체공통의 법칙으로 이 양자의 결합이다.” 결국 그들은 ‘나’와 ‘시대’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주제를 찾았던 것이다.¹³⁾

從海岸的山岩
多么寂寞我的影
從黃昏到夜闌
多么驕傲我的心

해안에서 가파른 절벽까지
나의 그림자는 얼마나 적막했던가.
황혼에서 깊은 밤까지
나의 마음은 얼마나 긍지로 차 있었던가.
舒婷, 「致大海」 중에서

상기한 舒婷의 「致大海」을 보면 ‘해안에서 가파른 절벽’과 ‘황혼에서 깊은 밤’으로 묘사되는 위태롭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시적 자아는 그러한 ‘적막’을 초월하여 스스로를 ‘궁지’로 채우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2. 舒婷 詩의 정서상 특징

舒婷 등 일부 몽롱시인들은 자아를 긍정하기 위하여 개인적 감정 특히 사랑의 감상을 가진 새로운 시적 풍경을 불러 넣는다. 시인의 자아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확인은 남녀 간의 사랑에 기초한다. 舒婷의 처녀시집 『双桅船』속의 시들 중 1/2은 애정시로, 몽롱시에서 舒婷의 애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애정시는 문화대혁명기간동안 개인적 애정표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기에 畫壇에서 누드화의 출현처럼 色情詩라고 비판받기도 했다.¹⁴⁾ 사실 그녀의 애정시엔 대담성이 보인다. 아래 無題(1)에서 남녀 간 육체적 사랑을 암시하는 표현이 보이며, 「神女峰」도 남녀 간 육체적인 접근을 암시하는 구절이 보인다. 「神女峰」 또한 舒婷의

12) 박종숙, 「現代主義와 舒婷의 “朦朧詩”」,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제2집, p. 70.

13) 藍棣之, 「現代詩的情感與形式」, 華夏出版社, 1994, 142쪽, 개인용.

14) 雨石, 「論舒婷 詩歌創作的傾向」『當代文學研究叢刊(제6집)』,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p. 252.

대표작으로 長江山峽의 仙女峰이 아름다운 전설의 미명 아래 오랜 세월 중국 여성들에게 정절과 헌신을 강요해 왔음을 고발한 시로 알려져 있다. 정절을 지켜 돌덩이가 되어 “절벽 위에서 천 년을 바라보는 것은 애인의 어깨 위에서 한바탕 우는 것만 못하다.”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 및, 인생관에 도전을 하며 인간중심의 휴머니즘을 선언한다.

我默默轉動你胸前的鈕扣	난 아무 말 없이 당신 앞가슴 단추를 어루만지며
是的, 我怕	예, 무서워요.
但我不告訴你爲什麼	하나 난 당신에게 이유를 말하진 않으렵니다. 舒婷, 「無題(1)」 중에서

美麗的夢留下美麗的憂傷	아름다운 꿈은 아름다운 슬픔을 남겼네
人間天上, 代代相傳	인간세상, 천상세계, 대대만손
但是, 心	그러나, 마음은
眞能變成石頭嗎	정말 돌덩이로 변할 수 있나요?
爲了眺望天上來鴻	먼 하늘 아득한 기러기를 바라보며
而錯過無數人間月明	무수한 인간의 밝은 달을 스쳤겠지.

沿着江峰	강기슭을 따라
金光菊和女貞子的洪流	홍수 같은 반흔초와 단광나무 열매는
正煽動着新的背叛	새로운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与其在懸崖上展覽千年	절벽 위에서 천 년을 바라보는 것은
不如在愛人肩頭痛哭一晚	애인의 어깨 위에서 한바탕 우는 것만 못하다. 舒婷, 「神女峰」 중에서

舒婷은 致橡樹, 「双桅船」, 「神女峰」, 「四月的黄昏」, 「自畫像」, 「思念」 등의 시에서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위 시들에 구현된 사랑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남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부드럽고 수동적이며 끝이 없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남자와 동등하게 서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랑이다.

전자는 모성에, 즉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1957년 舒婷이 여섯 살 때,

은행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멀리 변방의 산으로 압송되어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된 이후부터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서 동고동락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그녀의 시 가운데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간접으로 그리는 대목이 많다. 「啊, 母親」에서 舒婷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你蒼白的指尖理着我的双鬢,	당신의 창백한 손끝이 내 귀밑머리를 쓰다듬을 때
我禁不住像儿时一樣	난 마치 어릴 때처럼
緊緊拉住你的衣襟。	당신의 옷깃을 꼭 붙들어 줍니다.

啊, 母親,	아, 어머니
爲了留住你漸漸隱去的身影,	여명이 이미 꿈을 자라 연기로 피워 올렸건만
雖然晨曦已把夢剪成烟縷,	점점 멀어져가는 당신의 실루엣을 머물게 하려고

我還是久久不敢睜開眼睛。	난 오랫동안 감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我依旧珍藏着那鮮紅的圍巾,	난 여전히 그 빼알간 목도리를 소중히 간직
	한 채

生怕澆洗會使它	빨면 남아 있을 당신 특유의
失去你特有的溫馨。	따스한 내음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啊, 母親,	아, 어머니
歲月的流水不也同樣無情?	세월의 흐름은 역시 늘 그렇듯 무정한 건가요?
生怕記憶也一樣褪色啊,	추억 또한 그렇듯 빛바랄까 두려우니, 내 어찌 감히

我怎敢輕易打開它的畫屏?	추억의 그림 병풍을 함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	----------------------------

爲了一根刺我會向你哭喊,	가시 하나 때문에 당신에게 울고불고했던 내가
--------------	--------------------------

如今戴着荊冠, 我不敢,	이제는 가시관을 쓰고도 감히
一聲也不敢呻吟。	신음소리 한마디도 감히 낼 수 없습니다.

啊, 母親,	아, 어머니
我常悲哀地仰望你的照片,	난 늘 슬프게 당신의 사진을 올려다봅니다.
縱然呼喚能够穿透黃土,	설사 당신을 외쳐 부르는 소리가 황토를 뚫을 수 있다 해도

我怎敢惊動你的安眠？

내 어찌 감히 당신의 편안한 잠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我還不敢這樣陳列愛的禮品，

난 다시는 사랑의 선물을 늘어놓지 않으렵니다.

雖然我寫了許多支歌
給花、給海、給黎明。

비록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써서
꽃에, 바다에, 여명에 주었지만.

啊，母親，

아, 어머니

我的恬柔深謐的怀念，
不是激流，不是瀑布，
是花木掩映中唱不出歌聲的古井。

내 달콤하고 부드럽고 은밀한 그리움은
격류도 아니고 폭포수도 아닌,
꽃나무 어우러진 노래할 수 없는 옛 우물이
랍니다.

舒婷, 「啊, 母親」

문화대혁명이후, 北島의 「微笑, 雪花, 星星」, 李家華의 「愛情」, 黃翔의 「갈매기를 본 순간 너를 떠올렸다」 등 적지 않은 애정시가 나왔지만, 어떤 애정시보다 문단의 파문을 일으킨 애정시는 비로 舒婷의 「致橡樹 - 상수리나무에 바치다」이다.

我如果愛你
絕不像攀援的凌霄花，
借你的高枝炫耀自己；

내 만약 당신을 사랑한다면 —
절대로 기어오르는 목면나무처럼
대의 높은 가지를 빌어 나를 뽐내지 않을
거예요.

我如果愛你
絕不學痴情的鳥兒，
爲綠蔭重復單純的歌曲

내 만약 그대를 사랑한다면 —
절대로 치정어린 새를 따라
녹음을 위한 단순한 노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也不只像泉源，
常年送來清涼的慰藉；
也不止像險峰，
增加你的高度，襯托你的威儀。

또는 샘물의 원천처럼
해마다 시원한 위안을 보내지 않고
또는 험준한 봉우리처럼
그대의 고도를 높여 그대의 위용을 드러내
지도 않을 거예요

甚至日光，
甚至春雨。
不，這些都還不够！

심지어 햇빛
심지어 봄비
아니, 그것들로도 아직 모자라고 말고요!

我必須是你近旁的一株木棉，
作爲樹的形象和你站在一起。
根，緊握在地下，
叶，相触在云里。
每一陣風過，
我們都互相致意，
但沒有人，
听懂我們的言語。
你有你的銅枝鐵干

像刀，像劍
也像戟；
我有我紅碩的花朵，
像沉重的嘆息，
又像英勇的火炬。
我們分擔寒潮、風雷、霹靂；
我們共享霧靄、流嵐、虹霓，
彷彿永遠分離，
却又終身相依。
這才是偉大的愛情，
堅貞就在這裡：
愛
不僅愛你偉岸的身軀，
愛你堅持的位置，足下的土地

난 꼭 그대 곁에 한 그루 목면이 되어
나무의 형상으로 그대와 함께 서 있을 거예요.
뿌리는 땅 속에서 서로 꼭 잡고
이파리는 구름 속에서 서로 만지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피차 안부를 묻지만
아무도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대는 그대의 청동가지와 강철줄기를 지녔
어요.
단도 같고, 장검 같고
창과도 같은
난 나의 붉고 큰 꽃송이를 지녔어요.
무거운 탄식 같고,
영용한 햇불과도 같은,
우리는 한기, 습기, 바람, 천둥번개를 나누고
노을, 산안개, 무지개를 함께 누리죠.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지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으로
꽃꽂한 지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사랑해요 —
그대의 위용있는 체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견지하는 발아래 땅까지도.

舒婷, 「致橡樹」

이 시에서 舒婷은 목면과 상수리나무의 모습으로 종속적인 사랑을 비판하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사랑을 선언한다. 강철 같은 줄기와 가지, 칼과 검을 가진 남성(기존 전통의식, 도덕관, 남성중심 세계 등)과 동등하게 영웅적인 햇불과 같은 꽃송이(영성의 세계)로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세례를 함께 나누워지겠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비록 서로 다른 개체로 각기 존재하지만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긴밀히 유지한다.¹⁵⁾

15) 정성은, 「몽롱시인 舒婷 詩의 이미지와 抒情性研究」, 598-599쪽.

舒婷에게 시는 우연한 것, 본능적인 것이며 감정의 산물이지만 사상의 산물은 아니었다.¹⁶⁾ 그녀는 특히 5~60년대 정치서정시에서 금기시되던 낭만과 정서·사랑의 감정들을 담아내어 몽롱시의 대단한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대체적으로 그녀는 감정을 중시하고 개인의 양심, 도덕적인 자아의 완성을 강조한 내성적인 감정형 시인으로 평가된다.¹⁷⁾ Tony Barnstone은 “그녀 시의 주제는 포스트모던한 감각과는 거리가 있는 로맨스와 상실이다. 舒婷은 중국현대시에서 연애, 감정, 사랑의 영역을 개척하였는데, 이것은 문화대혁명기간에 성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금기시된 것과 연관된다.”¹⁸⁾ 고 말했다.

我是你河邊上破舊的老水車， 數百年來放着疲憊的歌； 我是你額上熏黑的礦燈， 找你在歷史的隧洞里蝸行摸索；	난 그대 강가의 낡아 빠진 오래 된 수차 수 백 년 피곤에 지친 가락을 뽑고 있는 난 그대 이마 위에 검게 그을린 채굴 램프 역사의 동굴 속에서 암중모색하는 그대를 비추는:
我是干癟的稻穗； 是失修的路基；	나는 말라비틀어진 벼이삭: 보수 받지 않은 노반:
是淤灘上的駁船 把織繩深深 勒進你的肩膀 —— 祖國啊！	여울 위의 난파선 견인 밧줄을 깊이깊이 그대의 어깨에 묶는 —— 조국이여!

我是貧窮， 我是悲哀。 我是你祖祖輩輩 痛苦的希望啊， 是“飛天”袖間	나는 가난하다 나는 비애에 잠겼다. 나는 너의 조상 대대로 고통의 희망이었다. “飛天”의 소매사이로
---	---

千百年未落到地面的花朵
——祖國啊！

我是你簇新的理想
剛從神話的蛛網里掙脫
我是你學被下古蓮的胚芽
我是你挂着眼泪的笑窩
我是新刷出的雪白的起跑線
是緋紅的黎明
正在噴薄
—— 祖國啊！

我是你十亿分之一
是你九百六十万平方的總和
你以傷痕累累的乳房
喂養了
迷惘的我，深思的我，沸騰的我
那就從我的血肉之軀上
去取得
你的富饒，你的榮光，你的自由
—— 祖國啊，
我親愛的祖國！

수만년 땅에 떨어져 내린 꽃송이었다
—— 조국이여!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상
신화의 거미줄로부터 금방 빠져나왔노라고
나는 눈 이불아래 마른 연꽃의 배이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달고 있는 보조개였다.
나는 새로 그은 희디 힌 출발선이었다.
피처럼 붉은 여명
바로 토해낸다.
——조국이여!

나는 너의 10억 분의 일
너의 구백 육십만 배곱 메터의 총합이다.
너의 상처투성이 유방은
먹여서 키웠다.
어리둥절한 나 깊은 생각에 빠진다 피끓는 나
자. 그러면 나의 피와 살로 된 몸위로부터
언어내라.
너의 풍요로움, 너의 영광, 너의 자유
——조국이여!
내 사랑하는 조국이여!
舒婷, 「祖國啊, 我親愛的祖國！」

이와 같이 舒婷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녀의 작품 도처에서 여러 형상으로 몽글몽글 뿜어내고 있으며 그러한 그녀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및,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등 개인적인 사랑에서 확장되어, 사회와 조국, 더 나아가 종교적 사랑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화합을 유도하는 따스롭고 포용적이며 애절한 사랑으로 과연 ‘애정시인’이라 할 만하다.

16) 舒婷, 「生活·書籍與詩」, 『舒婷詩文自選集』, 256쪽, “나는 사상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소한 시를 쓸 때 나는 차라리 검정의 인도를 받을지언정 사상의 가감승여를 믿지 않는다.” “시는 본능에서 나온다. 시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다.” 『停電的日子』, 『舒婷的詩』, 270쪽, 재인용.

17) 劉士杰 著, 『詩化心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15쪽, 재인용.

18) Tony Barnstone edited, *Out of Howling Storm: The New Chinese Poetry*, Wesleyan University Press of England, Hanover and London, 1993, 23-24쪽, 재인용.

IV. 결론

문화대혁명은 그야말로 정신적, 문화적 대학살이었다. 문화대혁명기를 포함하여 사상 및 정서 등 모든 것이 억눌린 가운데, 몰개성적이고 반감정적이며 사랑이 금기시되었던 30년의 시기가 지나자, 감정과 정서가 지하로부터 공개적인 場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문화대혁명기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마오쩌둥의 어록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여 동료, 사제, 학우지간뿐 아니라 부모자식과 부부간에 갈등과 적대감을 갖도록 강요받았던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집단적이고 머리로 하는 당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와 살이 통하는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 속에 흐르는 따뜻하고 끈끈한 사랑으로 인간의 타고난 본능적 영역에 속하는 긍정적인 감정이자 정서였다.

문화대혁명 직후 70년대 말 및 80년대 초, 중국문학에 있어서의 抒情性은 어느 주제를 막론하고 중시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랑’이라는 주제는 대중의 사랑과 호응을 열렬하게 받았다. 이것은 그간 억압되어 온 애정에 굶주린 인간본능의 자연스러운 요구일 것이다. 흔히 舒婷을 애정시인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그녀가 애정시만을 많이 써서 얻어진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누구보다 참신하고 의미심장하게 형상화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¹⁹⁾

대부분의 몽롱시인들은 현실을 관념적으로 비판하며, 꿈과 현실의 괴리, 좌절과 혼돈 등을 작품 속에 드러냈다. 그런데 舒婷은 혼돈 속에서 화합이라는 주제를 담고, 사랑의 감정을 노래했다. “인간은 과연 이성의 동물이나, 감정의 동물이나”라는 문제를 놓고 예로부터 많은 논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인간이란 이성의 동물이라기보다는 감정의 동물이며, 모든 학문 및 이성이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쓰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주장이 현재 여러 예를 통하여 입증되며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토로하며 허무의 상태에 머문 다른 시인들의 작품보다 죽어있던 자연적 감정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새로운 有를 만들어 보여준 舒婷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정신적 공황에 대한 대안으로 더욱 깊은 공감을 얻으며 정겹고도 힘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몽롱시인들의 작품은 어느 상황 속의, 누구에게서나 공감하기 쉬운 공시대적, 공사회적인 글보다, 시대적, 사회적 특수성 속에서 읽혀지는 시들이 많은 편이다.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특이한 까닭일 것이다. 그들은 문화대혁명의 문화전제주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불신과 저항의 태도를 취하는 한편 과거와 현재의 어두운 정치사회현실을 풍자하고 민주와 자유가 있는 새나라 건설을 열망하는 내용의 시들을 썼는데, 교조적인 시가 만연했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정적 개성이 물씬 풍긴다는 것이다. 舒婷 또한 祖國阿, 我親愛的祖國,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민족과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舒婷은 생활, 책, 그리고 시에서 “내가 시를 써온 이래 가장 잊을 수 없는 때는 천안문사건 이후다.”라고 쓸 만큼 국가 사회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와 조국에 대한 사랑마저 마치 남녀 간의 끈끈한 사랑처럼 진한 감정이 흐르게 하는 독특한 시체를 창조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문화대혁명이후의 중국문학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사인방의 죄상과 문화대혁명의 피해를 날날이 폭로하고, 그에 대한, 반성 및 재평가를 하며, 그와 같은 동란 속에서 박해받고 수난당한 민중의 상처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당 중앙의 4개 현대화 정책에 발맞춰 개혁현실을 형상화하는 내용이다. 전자는 ‘傷痕文學’과 ‘反思文學’이고, 후자는 ‘개혁문학’이다.²⁰⁾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 몽롱시를 상흔문학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²¹⁾ 상흔문학은 말 그대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문학이다. 영혼의 상처를 달래주는 데에는 교조적이고 관념적인 가르침보다 그저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따뜻한 사랑과 이해의 눈길 한번 보내

19) 박종숙, 『한국여성의 눈으로 본 중국현대문학』, 155-156쪽.

20) 박종숙, 『한국여성의 눈으로 본 중국현대문학』, 153-154쪽.

21) 정우광, 『페이따오의 시와 시론』 등.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문화대혁명이후 상처투성이의 영혼을 갖게 된 중국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입은 상처들을 공감어린 목소리로 읊어줌으로써 깊은 이해와 위로 및 안식을 주는 舒婷의 시들이야말로 천상에서 내려 온 나이팅게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대다수 몽롱시인들의 일반적 성향과는 다소 구분되는 舒婷의 작품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舒婷의 작품과 다른 시인의 작품을 비교함에 있어서 같은 주제의 작품들을 평행선상위에 놓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舒婷의 애정시들을 다른 몽롱시인의 관념적이고 반정치적인 감정을 읊은 시들과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舒婷의 대표적 작품들은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고, 당시 대다수 다른 몽롱시인들의 대표적 작품들이 정치와 사상, 가치관의 혼돈 속의 관념과 감정을 읊은 작품들이기에 이를 교차 비교함으로써 舒婷 작품의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의도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후 몽롱시인들의 작품을 같은 주제들끼리 묶어서 비교해보는 작업도 보다 섬세하고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갈내복, 『歷史需要沈淀 — 論朦朧詩』, 중국인문학회, 중국인문과학 제27집, 2003. 12.
 顧 城, 김태성 옮김, 『나는 제멋대로야』, 실천문학사, 1997. 6.
 김소현, 『몽롱시와 모더니티』, 중국학(舊중국어문론집), 중국학 제15집, 2000. 12.
 ———, 『몽롱시의 성격과 특징』,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제9호, 1995. 8.
 ———, 『1970, 80년대 중국 시의 狂氣와 省察』, 중국인문학회, 중국인문과학 中科34 輯, 2006. 12. 김양수 編譯, 『중국신시기문학입문』, 토마토, 1995. 12.
 김영구·김시준 共著, 『중국현대문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7.
 藍棣之, 『現代詩的情感與形式』, 華夏出版社, 1994. 藤井省三 著, 김양수 譯, 『100년간의 중국 문학』, 토마토, 1995.11.
 劉士杰 著, 『詩化心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박종숙, 『한국여성의 눈으로 본 중국현대문학』, 신아사, 2007. 2.

———, 『現代主義와 舒婷의 “朦朧詩”』,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제2집, 1993.
 北 島, 배도임 옮김, 『한밤의 가수 - 午夜歌手』, 문학과지성사, 2005. 5.
 舒 婷, 『生活·書籍與詩』, 『舒婷詩文自選集』
 성민엽, 한국일보-문학포럼, 2005. 5. 2.
 溫儒敏趙祖謨 主編, 『中國現當大文學專題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2. 1.
 兩 石, 『論舒婷 詩歌創作的傾向』, 『當代文學研究叢刊(제6집)』,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이영자, 『몽롱시 논쟁에 관한 고찰 (제2차 문학혁명의 가능성)』, 한국중어중문학회, 중어중문학 제1516합집, 1994. 6.
 李 平 主編, 『中國現當大文學專題研究』作品講評, 北京大學出版社, 2003. 8.
 정성은, 『모더니즘과 몽롱시』, 한국중어중문학회, 중어중문학 제12집, 1990. 12.
 ———, 『몽롱시인 舒婷 詩의 이미지와 抒情性研究』,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논총 제22집, 2002.
 鄭雨光, 『난 당신에게 이유를 말하진 않으렵니다』, 장백, 1989. 12.
 ———, 『朦朧詩 이후 - 세기말 중국 시단의 새로운 미학원칙들』,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제20호, 2001. 6.
 ———, 『北島의 近作詩—그 전통성과 현대성』, 石堂論叢, 2001. 7.
 ———, 『뻬이따오의 시와 시론』, 고려원, 1995. 9.
 ———, 『危機의 詩學: 90년대 시인들의 世紀末 意識』,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제17호, 1999.
 鄭鶴順, 『舒婷及她的典型詩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제32호, 2005. 3.
 정한용, <http://www.poemcafe.com/zboard/view.php?id=data5&no=5#>, (2005)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동녘, 2006, 8.
 허세욱 譯, 『中共現代代表詩選』 I · II, 전예원, 1987.
 Tony Barnstone edited, *Out of Howling Storm: The New Chinese Poetry*, Wesleyan University Press of England, Hanover and London, 1993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eculiarity of Shu Ting's works which are classified misty poem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everal misty poet's works are reviewed. Compare to another misty poet's works, a trait of Shu Ting's works is as followings. ① Shu Ting's works are indirect to critique the problems of Communist party than those of

Bei Dao, Gu Cheng etc. ② Shu Ting's works are not the product of intellectual ideology but the product of accident and instinct. ③ Specially her works include the romantic feelings which was prohibited at that times. Therefore she is evaluated as poet of sentiment style. Overall, this paper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interpretation of Shu Ting's works and suggests research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Menglongshi, Shu Ting, Bei Dao, Gu Cheng, Modern Chinese poetry